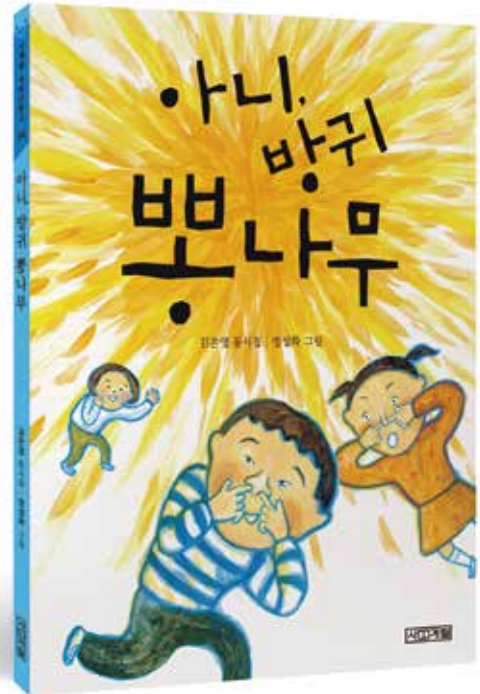

아니, 방귀 뽕나무

김은영 지음 | 정성화 그림



1, 2학년 중심 학년군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수록

국어: 글자, 낱말,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시나 노래를 듣는다.

3, 4학년

국어: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적 표현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시골 아이들의 순박한 삶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김은영 시인의 동시집이다. 가족이나, 주변에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만의 따스한 애정이 익살과 유머로 그려진 동시 39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인은 방귀라는 소재를 통해 아이들의 개구쟁이 같은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 준다. 더불어 아이들의 일상을 자연스러운 놀이로 표현한 시들을 통해 일상은 더 이상 지겨운 것이 아닌 재미난 놀이가 된다는 점을 알려 준다.

학습 목표

이 책에 나오는 시어는 모두 쉽습니다.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주변의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넘칩니다. 방귀와 같은 재미있는 소재로 개구쟁이 아이들의 모습을 손에 잡힐 듯이 실감나게 쓴 시들은 아이들을 시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창하고 추상적인 소재가 아니라 아이들이 늘 옆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쉬운 말로 썼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과 즐거운 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낭송할 수 있습니다.
- ② 시에서 말하는 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의 느낌을 말할 수 있습니다.
- ③ 시를 읽고 말의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④ 자신의 경험을 시로 쓸 수 있습니다.

독전 활동

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

➔ 무슨 말을 넣어 볼까요?(「뽕나무」 시어 채우기)

● 시의 제목을 가르쳐 주지 말고 칠판에 「뽕나무」 시를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감이 열면 _____ / 밤이 열면 _____ / 다래 열면 _____ / 머루 열면 _____ / 고욤 열면 _____ / 개암 열면 _____ / 오디 열면 _____ / 아니, _____.

● 감이 열면? 하고 질문하듯 시를 읽었을 때 아이들 중 누군가 답을 하면 그대로 적어 줍니다. 아무 이야기도 나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감나무!”라고 외치면서 적습니다.

● 다음 행을 읽습니다. 밤이 열면? 역시 누군가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대로 적어 줍니다. 대부분은 1행에서 쓰인 구성대로 가기 쉽습니다. 원래 시처럼 ‘감나무’라고 말했다면 2행도 ‘밤나무’라고 말하기 쉽고, ‘감나무’ 대신 ‘빨갭다’라고 말했다면 ‘밤나무’ 대신 ‘가시 송송’ 등 보이는 모습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 그런 식으로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대부분 요즘 아이들은 감과 밤까지만 알고 다른 열매는 본 적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감, 밤, 다래, 머루, 고욤, 개암, 오디 열매나 나무의 사진을 보여 주고 한 행씩 빈칸을 채워 봅니다.

- 감나무, 밤나무, 다래나무 식으로 쓰면 대부분 머루나무, 고욤나무, 개암나무, 그리고 오디나무까지 따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 같이 만든 시를 함께 읽어 봅니다. 읽다가 말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너무 길면 짧게도 만들어 봅니다.
- 마지막 행 '아니, _____.'에서는 아이들의 대답을 기다려 봅니다.
- 책을 보여 줍니다. 제목을 보면 아이들이 대변에 맞습니다.
- 어른인 김은영 시인이 나무들을 보고 쓴 시임을 말해 주고, 칠판 옆에 다시 김은영 시인의 원래 시 전체를 써 봅니다.
-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는 운율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크게 읽습니다.
- 원래 오디를 많이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와서 뽕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 이런 재미있는 동시들이 들어가 있는 『아니, 방귀 뽕나무』를 읽고 또 다른 재미있는 동시를 찾아봅니다.

▶ 오디를 알고 있는 아이들은 꽤 많이 있을 수 있고 직접 오디를 따 먹으면서 손이나 입이 까매진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 경험을 들어 봅시다.

▶ 빈칸을 처음부터 '감나무'라고 말해 주면 김은영 시인의 시와 거의 비슷한 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시인과 비슷한 시를 쓸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칭찬하면 됩니다.

▶ 기존 시에 빈칸을 두고 채우는 것은 시 공부에서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동시집을 거의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말놀이를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것임에 초점을 둡시다. 감이 열리면 감나무라는 식으로 '나무'라는 말이 그대로 반복되어도 시가 되는 재미, 뽕하게 가다가 '뽕'하고 방귀 소리로 반전되는 재미, 혹은 시인과 같은 말이 아니지만 자기를 나름대로 본 것을 그대로 적으니 시가 되는 재미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자기가 읽은 시 가운데 마음에 들거나 재미있었던 시가 있었나요? 읽은 시 가운데 자기 이야기와 비슷한 시가 있었나요? 「똥나무」처럼 방귀와 관련된 시가 있었는데 혹시 찾을 수 있나요?

- 「방귀와 자전거」, 「변비」를 함께 다시 읽어 봅니다.
- 어떤 상황인지 잠깐 이야기 나누고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 특히 방귀 소리를 좀 더 실감 나게 읽어 보게 하고 다른 방귀 소리를 흉내 내 보게 합니다.

➔ 시의 주인공이 잠이 와서 생긴 일을 시로 쓴 것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할 수 있나요?

- 「번데기와 달팽이」, 「엄마와 자벌레」, 「꿈꾸기 시간」을 함께 다시 읽어 봅니다.
- 어떤 상황인지 잠깐 이야기 나누고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 번데기, 달팽이로 표현된 모습을 흉내 내 보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 ▶ 한꺼번에 다 읽을 필요 없이 차례에 있는 제목을 보고 한 편씩 골라 읽어도 좋습니다.
- ▶ 제시한 소재 ‘방귀’나 ‘잠’ 뿐 아니라 선생님이 ‘열매’나 ‘아파트’, ‘동물’과 같은 주제로 다시 물어도 좋습니다. 방귀나 잠을 특별히 소재로 물은 까닭은 누구에게나 있는 경험이고 아이들이라면 방귀 이야기를 대부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

▶ 「번데기와 달팽이」 시를 몸으로 표현하기

- 이 시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에 각자 어떻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 일어나기 싫을 때 자기의 모습을 정지 동작으로 나타냅니다.
- 이번에는 짝을 지어 한 사람은 엄마가 되고 다른 사람은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이가 되어 봅니다.
- 일어나라는 엄마와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만들고 하나, 둘, 셋이라는 말에 맞추어 동작을 멈춥니다.
- 잠시 멈추어 서로의 모습을 본 뒤에 다시 그대로 앉습니다.
- 이번에는 정지 동작을 만들어 멈춘 뒤 선생님이 “터치!” 하면서 한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말 한두 마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엄마 역할의 아이를 “터치!” 하면서 건드리면 그 아이는 “빨리 안 일어나!”라고 할 수도 있고, 시처럼 “어서 일어나 껌떼기 훌훌 벗고 나비가 되어야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역할의 아이를 터치하면 역시 시처럼 “나 번데기 아니야. 달팽이란 말이야. 빨리 내 집 돌려줘.” 하거나 그 밖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다시 정지 동작을 하고 몇 팀을 차례대로 터치해 줍니다.
- 터치를 받아 자기 말을 한 아이들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 사람이 많으면 한꺼번에 여럿을 터치해서 소리를 질러 보게 해도 재미있습니다.



▶ 터치를 받아 말을 할 때 꼭 시 그대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자기의 엄마처럼, 또는 자기가 했던 대로 말하는 것이 훨씬 시를 창의적으로 읽고 표현하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 이 경험으로 자기의 시를 쓰게 이끌어 주세요.

➔ 재미있는 방법으로 시 낭송하기

- 방귀에 관련된 시를 다시 한 번 읽어 봅시다.
- 방귀 소리 부분에서 좀 더 실감 나게 흉내 내며 읽어 봅시다.
- 시를 읽는 방법을 말해 줍니다.

소곤소곤 읽기, 큰 소리로 읽기, 노래하듯이 읽기, 아주 빨리 읽기, 아주 느리게 읽기, 웃으면서 즐겁게 읽기, 화내듯이 읽기, 울면서 읽기, 짜증 내면서 읽기, 흉내 내면서 읽기, 웅변하듯이 읽기 등.

- 각자 낭송하고 싶은 시를 먼저 고른 후 방법을 골라도 되고, 방법을 고른 뒤 어울리는 시를 골라도 됩니다.
- 외워서 하면 훨씬 감동적으로 낭송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연습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 연습한 시를 발표해 봅시다.
- '시 낭송하기'라는 제목으로 각자 시를 써 봅니다.

▶ 시를 낭송할 때 모든 시를 꼭 천천히, 낭랑한 목소리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의 느낌을 이해하고 낭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를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을 때 훨씬 시의 분위기를 더 잘 느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시를 읽을 때는 주위를 어둡게 한 뒤 촛불을 들고 읽게 하면 시를 낭송하는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